

# 기술교류·합작투자 등 한-베트남, 中企 최대규모 협력

## 중기중앙회, '투자협력 포럼'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1992년 한국과 베트남간 국교 수교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 협력 모색에 나섰다.

한국 중소기업계 만형인 중소기업중앙회와 베트남 중소기업협회(VINA SME)의 지역 조직간 협력 촉진을 위한 5건의 업무협약(MOU)을 비롯해 양국 민간 기업 및 단체들이 10건의 MOU를 동시에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중소기업들의 기술교류, 인적교류, 합작투자 등 '민간외교'가 더욱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무역 상대국'으로 두 나라간 교역액은 약 74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만 1만개가 훌쩍 넘는다.

## 양국 中企, 지역 단체·기업 15건 MOU 기술·인적교류 등 '민간외교' 확대

베트남은 한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핵심 동반자이자 아세안(ASEAN)내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국가혁신센터(NIC) 호아락 캠퍼스에서 '신뢰와 협력: 한·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제'를 주제로 '2024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가 매년 연말께 해외에서 여는 백두포럼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판 민 쩌 베트남 총리가 한국을 방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면담하면서 성사됐다.

우선 양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단체 지역 조직간 폭넓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상호간 네트



중기중앙회는 21일 베트남 하노이 국가혁신센터 호아락 캠퍼스에서 '2024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왼쪽 10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응우옌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 응우옌 똌 똌 베트남 중소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워크 구축 및 진출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다.

이날 ▲광주(중기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중기회장)-타이응우옌성(응우옌 수안 닷 타이응우옌성 SME 회장) ▲대구(중기중앙회 최우각 대구경북중기회장)-박닌성(응우옌 똌 똌 박닌성 SME 수석부회장) ▲부산(중기중앙회 허현도 부산중기회장)-짱닌성 하롱시(응우옌 탄 칸 하롱시 SME 회장) ▲대전(중기중앙회 조창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중기회장)-흥연성(응우옌 티 탄 하 흥연성 SME 회장) ▲경기(중기중앙회 김식원 경기중기회장)-푸도성(응우옌 흥 선 푸도성 SME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기계, 플랜트, 의료기기, 제약, 식품, 소프트웨어 등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MOU를 체결, 투자협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베트남 사립병원협회(의료기기 공급 및 AS 지원 등) ▲동구바이오제약-PHIL 인 터내셔널(의약품 인증 및 국가별 시판 허가권 취득·판매지원 등) ▲직스테크 톨로지-BK 펀드(AI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및 CAD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 등이 대표적이다.

MOU 체결에 이어 진행된 포럼 본 행사 발표 세션에선 '베트남 직접투자

현황과 전망'(베트남 기획투자부), '고숙련 노동자 훈련 및 공급전략'(노동부 훈사회)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했다.

또 한국에선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트랩'(한국농기계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 '스마트공장 발전 사례'(삼성전자 김동욱 ESG 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 발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金 "기술·투자 늘려 성장기회 마련" 응우옌 "디지털 접목 인센티브 확대"

아울러 한국의 IBK기업은행이 '베트남 금융과 현지 한국기업 지원 방안'을, 베트남의 MB Bank(군사·산업은행)가 '한국기업을 위한 베트남 투자 기회 소개'를 주제로 각각 양국 기업들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총리도 베트남이 실질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단순투자에서 벗어나 혁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교류와 합작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국의 IT 기술

등 혁신 기술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합작투자 등을 통해 양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응우옌 똌 똌 VINA SME 회장은 "베트남은 당시기장부터 디지털 전환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관련한 교류, 협력, 공유, 투자를 우리는 적극 장려한다. 베트남은 모든 국가와 친구가 되고 경제협력을 원한다. 안정적인 경제·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밝혔다.

응우옌 화 빙 베트남 수석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140여 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이 투자 1위 나라다. 한국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870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다. 양국의 무역 교역액은 앞으로 1000억 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2030년엔 1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은 베트남에게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들간 협력을 통해 양국 수교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베트남)=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SKB

## B tv 키즈 콘텐츠 확장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협업한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B tv 키즈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키즈 서비스 B tv ZEM(잼)에 AI 기술을 접목한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 'AI 영어 더빙 동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AI로 만든 읽어주는 동화'는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제작됐다. 동화책 단행본을 AI가 주문형비디오(VOD)로 만든 콘텐츠다. 동화 속 배경, 등장인물, 대사, 감정 등 이미지와 내용을 학습하고 파인튜닝(Fine-tuning·미세 조정을 통한 성능 향상)한 AI 모델로 움직임을 생성해 생생한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변환한다.

50페이지 내의 동화책 분량을 4분 남짓의 동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달부터 '파닥파닥 해바라기' '엄마 자판기' '여덟살 오지 마!' 등 총 12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AI 영어 더빙 동요'는 SK브로드밴드가 투자하고 콘텐츠 기업 크레이지 버드 스튜디오가 제작한 '뽕뽕이의 그림일기 동요'가 바탕이 됐다.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및 사업협력 지원 프로그램에 추천된 허드슨에이아이도 제작에 참여했다.

영어 더빙 동요는 번역, 연기, 연출, 노래 편집, 믹스 등으로 인해 AI 제작 난이도가 최상위로 꼽힌다.

/이혜민 기자 hyem@

## 애경케미칼

## 신사업으로 체질 강화

애경케미칼이 업황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오는 2025년까지 TPC 양산 체계 구축하고 2026년 1월부터 생산에 본격 돌입해 아라미드 섬유산업 밸류체인 핵심 부분을 차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TPC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돌입,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한 뒤 울산공장 등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했다. 기존 TPC 생산 방식은 '열'을 활용해 이산화황과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반면, 애경케미칼은 '광(光)공법'을 적용해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TPC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하며 난연성까지 갖춘 슈퍼섬유, 아라미드의 주원료다. 전 세계적으로 아라미드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TPC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현정 기자

# 번역·요약·코딩까지 완벽 '가우스2'로 AI 생태계 확장

##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개최 사내 맞춤형 AI 솔루션 가우스2 공개 다중 데이터 처리, 기존 대비 성능 ↑

삼성전자는 21일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코리아 2024(SDC24 Korea)'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발자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했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에 집중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고객의 삶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고유의 생성형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2'를 공개하고, 향상된 성능과 효율,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과 단계적 제품 적용으로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형 삼성리서치 부서장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삼성 가우스2'를 소개했다. 이 부서장은 "직원이 모르는 내용을 AI가 즉시 해결해 삼성의 생산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가우스2는 삼성전자 사내 맞춤형 생성형 AI 모델인데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가우스1 모델과 달리 여러가지 데이터 유형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2세대 버전이다.

이 부서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일반 웹브라우저에서 문서 번역, 내용 요약 등을 즉시 처리하는 기능을 직접 시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LS전선-마린솔루션, 해상풍력 산업 선도

### 태안해상풍력 프로젝트 우협 선정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LS마린솔루션과 LS전선이 충남 태안해상풍력의 해저케이블 공급 우협상대선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태안해상풍력은 싱가포르 기반의 재생에너지 기업 뱌나에너지(Vena Energy)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 해상에 약 500MW(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공급을, LS마린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은 축적된 글로벌 경험과 국내 최장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상



(왼쪽부터) 구분규 LS전선·LS마린솔루션 대표, 정광진 (주)태안풍력발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전선

풍력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LS마린솔루션과 협력하여 완벽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 선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026년까지 총 7~8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LS전선은 이에 발맞춰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사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서현정 기자 hyeon@